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 귀임 -환송연-



지난 2005년 8월에 부임했던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郎) 주한일본대사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임하게 되어 우리협회 회장단은 지난 8월 20일(월) 신라호텔에서 환송연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 회장(효성·전경련 회장), 김상하 명예회장(삼양사 회장), 라응찬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박세영 부회장(한국팬트랜드 회장),

이길현 감사(경원 회장), 허남정 전무이사 등 회장단 10명(부부동반)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郎) 주한일본대사,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공사, 오이케 아츠유키(尾池 厚之) 공사 등 5명(부부동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석래 회장은 “한일관계가 잘 되어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동북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튼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으며, 한일 양국 국민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오해와 편견을 하루 속히 걷어내어 양국이 정말로 가까운 이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오시마 대사께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으며, 쉽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많이 애써주셨다”며, “본국에 돌아가시더라도 많은 일을 하시고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며, 한국과 일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오시마 대사는 “지난 2년간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한일경제협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일본이 전세계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웃나라인 한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간 놓여 있는 복잡한 문제, 역사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2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확신하고 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일교류, 특히 인적교류가 더욱 더 활발해 지고 있는데 이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18일(수) 오시마 대사 주최로 우리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주한일본대사관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 회장, 구본준 부회장(LG상사 부회장), 김윤 부회장(삼양사 회장), 김희용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라응찬 부회장, 우석형 부회장(신도리코 회장), 이운형 부회장(세아제강 회장), 최용권 부회장(상한기업 회장), 이길현 감사, 허남정 전무이사 등 회장단 17명(부부동반)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郎) 주한일본대사,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주한일본공사, 야마모토 에이지(山本 栄二) 공사, 오이케 아츠유키(尾池 厚之) 공사 등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일본 큐슈(九州)지역과 19개 협력사업에 합의

~ 제1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일본 큐슈(九州)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1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지난 7월 10일(화)~13일(금)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산업자원부 홍지인 통상협력기획관을 단장으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KOTRA 등 15개 관련 경제단체, IT·물류·관광 관련 기업 등 126명이 참가하였으며, 일본(큐슈)측에서는 타니 시게오(谷重男)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큐슈지역 4개 현 2개 政令市, 관련 경제단체, 기업 등 13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992년 일본 큐슈(九州)지역 기타큐슈시(北九州市)의 '코리아 페스타'(한국우량제품전시상당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일본 큐슈지역과 1993년 「제1회 한·일(九州)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고 있는 이 경제교류회의를 통해 한·일(九州) 간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 중이며, 지역 간 경제협력 채널 구축 및 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한일 간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5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19개 협력 사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편 이번 회의와 병행하여 회의 성과 발표회 및 양국 물류·IT(소프트웨어)·관광 분야의 기업 간 제휴 촉진을 위한 테마별 분과회가 개최되어 한국과 일본(큐슈)지역과의 제휴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차기 회의는 2008년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

제9회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개최

한일 양국 경제 협회는 한일 청소년교류 사업으로서 한일 관계의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 확대를 위해 보다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2004년 1월부터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경제체형 캠프)」를 개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9회 캠프는, 8월 5일(일)부터 9일(목)까지 4박5일간 한국 측에서 20개교 41명, 일본 측에서 20개교 34명, 합계 40개교 75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도쿄(東京) 신코(新光)증권 하네다(羽田)연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총 9회 303개교 836명 참가)

이번 『한일고교생교류캠프』에서는 한일 양국의 고교생이 4박 5일 동안 함축하면서 각 9~10명씩 한일 혼성 8개팀으로 나누어 한일 양국의 관광·문화 등의 상품을 비즈니스 기획하여 사업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비즈니스 기획 발표에서는 패션·의류, 음식서비스, 식료품, 유통·서비스판매, 관광·레저, 정보제공서비스, 환경, 복지·의료, 교육 등 8가지 카테고리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비즈니스 기획이 이루어졌으며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패션 재현, 일본에서 한국요리의 자동판매기 구입, 구매대행서비스, 한일교류 운동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종합정보서비스, 청소년을 위한 숙박오락시설, 저출산·소자화 대책을 위한 기업 내 탁아소 운영, 양국의 문화교육 마을에 대한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번 9회 캠프에서는 양국의 문화·인적 교류



를 통한 우호 협력증진을 팀 전원이 참가하여 가장 잘 표현한 「양국의 문화교육 마을」을 발표한 8팀(M2M : 마을+무라(村))이 최우수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요리를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하는 것을 기획한 2팀 「(KAKEHASHI/どこでも한식(어디에서든 한국요리))」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친구에게 한마디 코너에서는 한국측 학생 중 한명이 일본측 친구에게 “너를 만난 것이 이번 캠프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이며, 서로의 마음에 남는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업발표회 결과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남는 친구를 얻은 것이 더욱 소중한 체험형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4박 5일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간의 정(情)으로 헤어지기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제10회 캠프는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회원사 기업에서도 많은 참여를 통해 미래 지향의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9회 한일新산업무역회의 제1차 전문위원회 개최



오는 11월 12~14일 일본 요코하마시(PAN PACIFIC HOTEL)에서 개최되는 『제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와 관련하여 논의 의제가운데 하나인 「한일기업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제1차 전문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금) 협회 회의실에서 허남정 전무이사의 진행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본 회의에는 삼성물산 이수철 부사장(신산업무역회의 코디네이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인중 상무이사, 경희사이버대학교 오태현 교수, 산업연구원 사공목 연구위원, 한일정밀주조(주) 신현근 상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오태현 교수는 한일간 경제·산업협력의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일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일 기업간 Win-Win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인중 상무이사는 한일 양국 산업클러스터의 정책구조와 그 동안의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과 클러스터간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조사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제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한일경제인회의』를 서포트할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제9회 한일新산업무역회의 일정(안)

11. 12 (월)	오 전 후	출국(김포 → 하네다) 산업시설 견학 / 공장견학 / 리셉션
11. 13 (화)	오 전 후	Session I (테마 : 저출산·소자녀화의 기업경영) Session II (테마 : 한일 투자의 현상과 사례) Session III (테마 : 한일기업간 협력방안)
11. 14 (수)	오 전 후	옵션활동 귀국(하네다 → 김포)

※ 본 회의에 참석을 희망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김정호 부장 Tel : 02-3014-9866 / E-mail : jhkim@kjc.or.kr

2007 한·일(호쿠리쿠) 기업상담회 참가기업모집

우리나라의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와 일본 호쿠리쿠(北陸 : 도야마(富山)현, 이시카와(石川)현, 후쿠이(福井)현)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간 경제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8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오는 11월 7일(수)~10일(토)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번 제8회 회의와 병행하여 오는 11. 8(목) 울산광역시 호텔현대울산에서 개최되는 한일기업 상담회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쿠리쿠지역(富山縣, 福井縣, 石川縣)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양국 기업간 상담회에서는 양국 기업인간 관심사항에 대한 사전 매칭(상담)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성과 거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양국에서 각각 상담에 관심 있는 기업을 모집 중에 있사오니,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관심 있는 회원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홍소영 사원 Tel : 3014-9888 / E-mail : syhong@kjc.or.kr)



日本은 지금...

외자도입정책의 전환을 추진하는 中國

정책전환을 재촉하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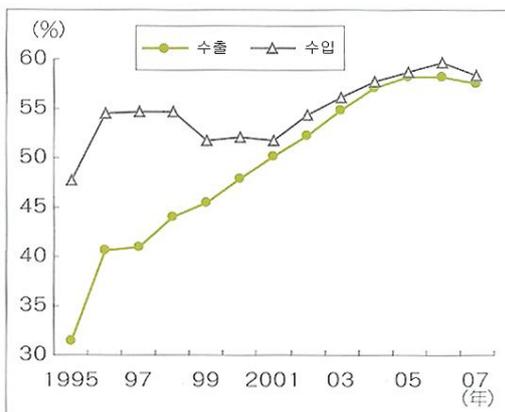
1980년대 이후, 중국은 직접투자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외자환영의 자세에 변화가 보인다. 외국자본계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재인식하여 기업의 소득세율을 일원화하는 「기업소득세법」을 금년 3월에 채택한 것은 그 상징적인 사례이다.

중국정부가 외자정책의 전환을 도모하는 배경으로서, 외자우대책에 대한 비판고조와 급속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다.

2001년 WTO 가맹 당시, 중국은 외국자본계 기업에게 중국기업과 동등한 조건(market access 등)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고 그 공약을 대체로 이행해왔으나 이번에는 외자만 우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2004년경부터는 외자에 의한 시장의 석권과 무역마찰의 격화 등 외국자본계 기업의 진출에 따른 단점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자본계 기업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견해의 배후에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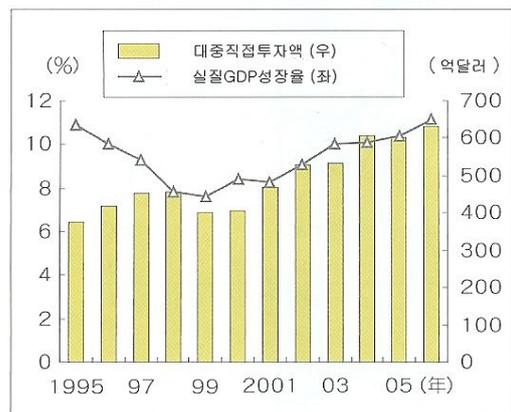
<그림1> 무역에서 차지하는 외국자본계기업의 비율



(자료) 海關總署 등
(주) 2007년 1~5월의 수치

또한 중국에서는 4년 연속으로 10%이상의 고성장이 계속되어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그림2). 외자의 획득과 수출의 확대, 게다가 고성장 확보를 위해서 외국자본계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지속할 필요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대중직접투자의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2007' 등
(주) 투자액은 실행기준, 금융 비포함

산업정책의 목적에 따른 외자유치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대하여, 후진타오 정부는 2006년 11월 외자정책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책정하였다. 이 「외자이용 5개년 계획」에서는 산업고도화와 기술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여,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정책 추진에 대한 공헌이라는 면을 중시한 직접투자를 수용하는 방침을 나타냈다.

상기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업의 대중사업전개에 대한 영향이라는 관점에서는 특히 다음의 두 가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특정산업이나 지역의 발전, 기술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장려업종으로는 농업이나 서비스 산업, 합작방식에 따른 자동차제조 등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연구개발부문이나 연구센터 설치와 동시에 지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 장려하고 있다. 반면에 생산능력 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억제책을 담은 산업정책을 적용하여 외국자본계 기업을 유지해 나가려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점지역으로는 중서부, 동북지역 등을 들 수 있으며 지금까지 외국자본계 기업이 집중되어 온 동부(연해부)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문언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자원이용과 환경보호 면에 대한 관리강화를 명확히 하였다. 물, 에너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외국자본계 기업에 의한 신규투자안건을 심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더욱이 지역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을 배려한 생산활동 여부에 대한 감시강화, 수자원 및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공장에 대한 강제폐쇄조치 실시도 명기되어 있다.

앞으로의 전개와 일본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서두에서 말한 「기업소득세법」에서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15%의 소득세율의 적용(통상은 25%),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할증공제,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설비 구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외자계획 5개년 계획」에 나타난 외자정책의 전환 흐름이 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은 세제 면에 있어서의 우대조치 감소나 공장의 이전요청 등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가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불가결하다. 일본기업은 이번에 명확히 도출된 중국의 외자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전략을 구축해 가야만 할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기술 등은 우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하에서도 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기술면에서 우위성을 최대한 살린 對중국사업 전개야말로 일본기업에게는 기회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Monthly Review 2007. 8>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서 주목받는 인도지나

동아시아에서는 무역과 직접투자를 통하여 실질적인 면에서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 받는 것은, 지금까지 발전이 지연되었던 지역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2 메콩국제교량(일본이 엔화차관을 제공)의 완성으로 국제적인 물류망이 정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91년 캄보디아의 평화성립을 계기로, 아시아 개발은행의 지원 아래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메콩강 유역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와 중국의 윈난성(雲南省)을 대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①운수

(도로, 철도, 수운 등), ②통신, ③에너지, ④환경·자연자원관리, ⑤인적자원개발, ⑥무역과 투자, ⑦관광 등이 중점 분야이다.

도로에 관해서는 동서경제도로(다낭-사바나켓-무크다한-모라마인), 남북경제도로(쿤밍-치양라이, 쿤밍-하노이), 남부경제도로(방콕-프놈펜-호치민-봉타오) 건설에 착수하여, 2006년 12월 동서경제도로의 일부인 라오스의 사바나켓과 태국의 무크다한을 연결하는 제2 메콩국제교량이 완성되었다.

그 전까지는 방콕에서 하노이까지 해상수송으로 10일정도 걸렸지만, 이로 인해 대폭 단축되었다. 국제물류회사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육상수송망 구축에 뛰어들어서 중국의 내륙부와 ASEAN 각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외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물류망의 준비는 메콩유역국가에 대해 ①농촌부에서의 도시를 겨냥한 상품작물생산, ②수출기회의 제공, ③도시로의 전출기회 증가, ④해외에서의 직접투자 증가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가운데 발전이 늦었던 캄보디아, 라오스<표1>에 공업화의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표1> ASEAN 각국의 지표

	1인당 국민소득 (달러, 2004)	빈곤자 비율 (%, 2003)	중등교육 취학률(%, 2004)	
			남 성	여 성
싱가포르	24,760	-	75 (1996)	73 (1996)
태 국	2,490	0.7	72 (2005)	74 (2005)
말레이시아	4,520	0.2	81	71
인도네시아	1,140	6.5	64	64
필리핀	1,170	14.1	82	90
캄보디아	350	33.8	35	24
라오스	390	28.8	52	39
미얀마	220	-	40 (2005)	40 (2005)
베트남	540	9.7	75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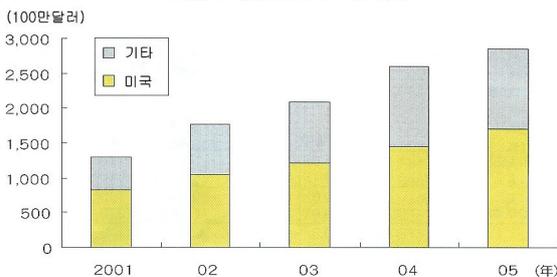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2006

(주) 1. ()는 연도

2. 빈곤자는 1일 1인당 1달러(구매력 평가) 이하의 지출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앞에서 말한 물류망의 정비이다. 중국에서는 임금과 인민화(元)가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중국정부도 외자의 선별화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제품의 일부가 후발국가로 생산이 전환되었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미국을 타겟으로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던 홍콩, 대만, 중국, 한국계 기업의 생산 이전에 의해 봉제업이 급성장, 수출의 확대로 이어졌다. <그림1>

<그림1> 캄보디아의 수출 동향



(자료) <표1>과 동일

라오스에서는 제2 메콩국제교량의 완성을 목표로 이 다리에 인접한 지역에 트레이드 센터, 공장, 호텔의 건설을, 주요국도가 교차하는 지역에는 공장, 창고, 카고터미널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륙부에 위치한 약점 때문에 라오스에서는 지금까지 공업화가 별로 진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0년대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맹함에 따라 ASEAN에서는 역내격차 시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2000년 비공식정상회의에서 「ASEAN통합 이니셔티브」를 개시할 것에 합의하고, 인재육성,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력을 추진해 나갈 것, 또한 「비엔티안 행동계획(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 2005년부터의 중기계획)」에서는 격차시정의 대응을 추진하는 수단으로써 ASEAN개발기금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격차의 시정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이나 발전이 더딘 지역에 공업화의 영향 파급이 불가결한데, 그 환경이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이러한 흐름을 지원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자료출처 : Monthly Review 2007. 8> 



◎ 조선통신사 파견 400주년 ◎

- 조선통신사를 말한다 -

조선통신사란 무엇인가?

처음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된 것은 고려 말, 통신이란 두 나라가 서로 신의를 교류한다는 의미로 이웃 국가간의 상호친선을 위한 연락사절 정도의 의미였다. 1392년 조선의 건국 직후, 골칫거리였던 왜구를 견제하기 위해 태조 이성계는 일본에 승려를 보내어 이들의 단속을 요청했다. 이후 1404년(태종 4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린관계가 성립되자, 조선국왕과 막부장군은 각기 양국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외교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절을 각각 파견하였다. 이때 조선국왕이 막부장군에게 파견하는 사절을 통신사, 막부장군이 조선국왕에게 파견하는 사절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통신사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구분된다. 조선전기에는 통신사(通信使), 통신관(通信官), 보빙사(報聘使), 회례사(回禮使), 회례관(回禮官), 경차관(敬差官) 등 다양한 명칭의 사절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통상적으로 통신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1603년에 세운 에도(江戶) 막부를 상대로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년 만인 1607년(선조 40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 후반기에 모두 12차례 파견된 외교사절을 가리킨다. 올해 400년을 맞은 것은 바로 이 후반기 통신사다. 조선 전반기에도 통신사라는 이름의 대일 외교사절이 1428년(세종 10년)부터 1590년까지 다섯 차례 파견됐지만 후반기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았다.

조선 초기의 파견목적은 임진왜란 전에는 주로 왜구 금지요청이 주가 되었으나, 임란 직후에는 일본 정세를 탐색하고, 전쟁 중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귀환시키는 것(쇄환:刷還)이 주된 임무였다. 그래서 1607년부터 세 차례 사절은 '회담 겸 쇄환사'가 공식 명칭이었다. 1636년의 네 번째 사절부터 '통신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1636년(인조 14) 이후는 막부장군의 습직(襲職) 축하가 주임무였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의미는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원조 한류'의 역할로서 통신사는 양국의 문화, 문물 교류를 이끌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3국의 평화 공존에 기여하고,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데 있다.



조선통신사의 여정

일본에서 새로운 막부장군의 승습이 결정되면, 쓰시마번주(對馬島藩主)는 막부의 명령을 받아 통신사청래차왜(通信使請來差倭)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조정에서는 중앙관리 3인 이하로 정사·부사·종사관을 임명하고 조선 최고 관료, 학자, 예술인, 악대, 무인(경호원), 통역관 등 300~500명으로 구성되는 사절단을 편성하였다. 이들은 국서(國書)와 일본 가속에 줄 예단의 품목인 별폭(別幅)을 지참하고 한양을 출발하여 부산(동래부)까지는 육로로 간 뒤, 쓰시마(對馬島)를 경유, 쓰시마번주(對馬島藩主)의 안내로 해로를 이용, 시모노세키(下關)를 통과하여 일본 각번의 항응을 받으며 오사카(大阪)의 요도우라(淀浦)에 상륙, 육로로 교토(京都)로 갔다. 조선 전기에는 이곳에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교토가 종점이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장군이 에도(지금의 도쿄[東京])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는 에도가 되었다. 일행이 통과하는 객사에서는 한시문과 학술의 筆談唱和라고 하는 문화상의 교류가 성대하였다. 특히 통신사에 대한 화려한 접대는 일본의 재정을 압박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1711년 아라리 하구세키는 통신사 접대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도 하였으나 1719년에는 다시 환원되었다.

막부장군에게 조선국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통신사의 왕복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개 6개월~1년이 소요되었다. 그들은 방문하는 곳마다 서화·시문 등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이 화려한 행렬도를 그린 병풍·회관·판화 등의 형태로 전해진다. 또 그들은 귀국 후 일본에서 겪은 일들을 여러 형태로 남겼는데, 이것이 《해행총재(海行總載)》라는 견문록으로 엮여져서 당시 두 나라 간의 외교적인 역할 및 문화교류의 실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는 한일간의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대로, 통신사는 평화와 선린우호를 위한 국가사절로서 선진문물을 전파함과 동시에 한일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400주년...조선통신사가 남기는 의미

올해 조선통신사 40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양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선통신사 국제 학술 심포지움(5월)>,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5월)>, <조선통신사 유적지 탐방행사(7월)>, <21세기 한일 어린이 통신사 2007(8월)> 등이 열렸고, 일본에서는 <400년만에 다시 밝힌 축제의 등불(5월)>, <아리랑축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8월)>, <조선통신사 옛길의 축제(10월 예정)> 등이 전개되거나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통신사는 한일 양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신사를 통하여 외교문제를 해결하고,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도 통신사를 통하여 우호관계를 회복하였으며, 성숙한 양국의 국제의식을 나타내었다.

조선통신사 4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일 학계의 노력이 거듭되고 있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기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류의 시초였다는 조선통신사에 대한 자부심도 아니요, 학술적인 연구 성과도 아닐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통신사를 통해 배워야 할 국제화된 시각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거듭된 외교 노력, 그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문화적·학문적 교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이라 하겠다.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한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옛 조선통신사의 발길을 따라 다시 한 번 그 뜻을 되새겨보기를 기대해 본다. [E]

기획 연재 - 일본의 機械遺産 (上)

일본 기계 학회는 올해 11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에 남는 기계 기술 관련 유산을 소중히 보존하여 문화적 유산으로서 차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내의 기계 기술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기계유산」(Mechanical Engineering Heritage)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는 이 기계유산은 학술 면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계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중요한 성과를 이루고, 일본 국민생활과 문화, 경제적으로 공헌하였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기계나 기기 외, 기계 관련 시스템, 기계 공장, 설계 시방서나 교과서 등이 인정됩니다. 인정 후에는 소유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계속 보유하지 못할 경우에 국립 과학박물관이나 자치체로 이관을 중개함으로써 처분이나 유실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25가지 기계유산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코스게 도크의 예인장치 (小菅修船場跡の曳揚げ装置)

The steam engines and hauling machinery at the Kosuge Ship Repair Dock

에도막부 말기에 축조된 현존 최초의 근대 조선 설비. 1867년 사츠마 번(薩摩藩)은 외국에서 매입한 증기선을 보수하기 위해 무역상 T.B. 그래버 등과 공동출자로 착공하여 다음해인 1868년에 완성했다. 이 곳에는 영국에서 수입한 보일러, 견형(堅型) 2기통 25 마력의 증기 기관, 톱니바퀴를 이용한 예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1,000t의 배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선대의 레일위에 선체를 받친 부분을 주판과 같이 늘어놓고 체인을 넣어 증기 기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며 도크도 일본 최초의 벽돌 구조이다.



● 쿠마모토 대학의 옛기계실험공장과 문화재 공작기계군 (熊本大学の旧機械実験工場実と文化財工作機械群)

Memorial workshop and cultural machine tools in Kumamoto University

쿠마모토 대학 공학부 연구자료관 안에 보존되어 있는 11대의 공작기계군은 1994년에 일본문화청에 의해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의 연구자료관 건물은 예전의 기계실험공장에서 1908년에 준공해, 1970년에 신공장이 신축될 때까지 60여년에 걸쳐 연구교육에 사용되었다. 일본 공업기술의 여명기에 만들어진 메이지 시대의 서양식 연구교육시설로서 그 형태대로 현존하는 것은 일본전국에서도 드물고, 역사적으로 귀중한 뿐만 아니라 기술적 가치도 매우 높기 때문에, 공작기계를 포함하여 일본에서 지정 중요문화재로 여겨졌다. 이 공작기계군은 전문가나 일반 견학자에게 역사적 자산으로 견학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작동을 시켜 젊은세대에게 관찰하도록 함으로써 공작기계의 구성이나 기계공작법을 생각하게 하는 기기 제작 교육에도 이용되고 있다.



● 육지용 증기 터빈 (陸用蒸気タービン)

Land Steam Turbine (Parsons Steam Turbine)

이 기계는 1908년 10월, 미츠비시 합자회사(미츠비시중공업의 전신)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제조된 일본국산 제1호의 육지용 증기 터빈이다. 이 육지용 증기 터빈은 회전수 2,400rpm, 압력 1.03 MPa, 온도 186℃의 증기로 운전된다. 1920년까지 공장의 발전용 터빈으로 널리 쓰였으며, 현재는 미츠비시중공업(주) 나가사키조선소 사료관에 보존 전시되고 있다.



● 발구동식 선반 (足踏旋盤 (明治8(1875)年 伊藤嘉平治作))

A Forged Iron Treadle Lathe made by Mr. Kaheiji Ito in 1875

* 旋盤 : 각종 금속 소재를 회전 시켜서 갈거나 파내거나 도려내는 데 쓰는 금속 공작 기계. 같이 기계

단철로 만든 발구동식 선반은 1875년경에 이토 카헤이지가 제작한 것이다. 이토 카헤이지는 1872년에 상경해 다나카 히사시계(에도막부 말기에 증기 기관을 연구하여, 1865년에 목조 증기선 제조에 성공, 1875년에 도쿄에서 민간 최초의 기계공장 다나카제작소를 설립해 기계류의 수리·제작을 실시하고 후에 세계적 기업인 토시바의 창업자가 된 사람)의 공장에서 기계 제작을 배웠는데, 그 때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다라이반(독일의 Drehbank에서 유래된 말. 공작기계 내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었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기계. 공작물을 주축과 함께 회전시키고 커터를 접촉시켜서 금속을 절삭하는 기계)을 보고 영향을 받아 제작했다고 한다.



● 10A 로터리 엔진 (10A型ロータリエンジン)

10A Rotary Engine

1967년 5월 30일, 마츠다(주)(당시 동양공업(주))는 세계 최초의 2로터 로터리 엔진 탑재차인 코스모스 포트를 발매했다. 이 차에 탑재된 10A형 로터리 엔진(단실배기량 491cc)은 원리적으로 소형, 고출력, 저진동의 특징을 갖춘 로터리 엔진을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실용화한 것이며, 내연기관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 혼다 CVCC 엔진 (ホンダCVCCエンジン)

Honda CVCC Engine

혼다 CVCC 엔진은 1970년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달성이 불가능하다고까지 일컬어진 미국의 강력한 배기규제법인 머스키법안을 세계 처음으로 통과한 엔진으로, 그 공적에 의해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SAE)로부터 20세기 우수 기술차(Best Engineered Car)에 선출되었다. 또, 이 기술을 계기로 많은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고안되어 일본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세계 정상자리에 자리매김해준 역사적인 기계이다. 부연소실과 부연소실용 밸브를 통해 연료를 전부 다 태울 수 있게 만들어져 촉매를 사용하지 않아도 배출 가스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되었다.



● 민간항공기 FJR710제트엔진

(民間航空機用FJR710ジェットエンジン)

FJR710 Jet Engine

FJR710 엔진은 1971년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의 대형 프로젝트 「항공기용 제트 엔진의 연구 개발」로 개발된 일본 최초의 고바이패스비 터보 팬 엔진이다. 이 연구 개발은 항공우주기술연구소(현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요소 연구, 운전 시험을 담당해,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주)(현(주)IHI), 미츠비시중공업(주), 카와사키중공업(주)의 3사가 설계 시작을 담당했다. 이 엔진의 고공 성능 시험이 영국의 NGTE(당시)에서 실시되어, 그 고도의 기술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단거리용 여객기 A320 등에 탑재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항공 우주 기술 연구소의 단거리이착륙 실험기 「아스카」에 탑재되는 등 일본 민간항공엔진의 주춧돌이 된 엔진이다.



● **YANMAR 소형 횡형 수냉 디젤엔진 HB형**
(ヤンマー小形横形 水冷ディーゼルエンジンHB形)

YANMAR Small Horizontal Diesel Engine, Model HB

이 엔진은 야마(주)가 세계 최초로 디젤엔진의 소형실용화에 성공한 모델이다. 1930년 당시 소형내연기관은 석유 발동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야마(주) 창업자인 야마오카는 디젤엔진의 뛰어난 에너지 절약·안전성에 반해 소형디젤엔진 개발에 몰두 1933년 12월 세계 유례없는 소형디젤엔진의 실용화에 성공하였다. 소형화된 디젤엔진은 각종 산업의 동력원으로서 폭넓게 사용되어 세계 각국의 기계화·근대화에 영향을 주었다.



● **이노구치식 소용돌이 펌프 (みのくち式渦巻きポンプ)**

Prof. Inokuchi's CENTRIFUGAL PUMP

이 펌프는 도쿄 제국대학 교수인 이노구치 아리야가 발명하고 제자인 하타케야마가 실용화한 것으로 하타케야마의 직장이었던 쿠니모토 기계제작소에서 제조하였다. 이노구치 펌프는 당시 세계에서도 주목을 끄는 획기적인 발명이었다. 쿠니모토 기계제작소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하타케야마는 자택을 사무소로 하여 「이노구치식 기계사무소」를 세우고 계속하여 펌프를 실용화해 제조하였으며, 그 이론을 응용한 소용돌이 펌프는 현재도 제작되고 있다.



● **고주파 발전기 (高周波発電機)**

High Frequency Generator

고주파 발전기는 기본 주파수와 대출력을 발생시키는 장파 송신 설비의 심장부에서, 주직류전동기에 의해 구동된다. 전기자(회전자)는 질량이 16t로 256의 톱니가 있는 기어 모양의 구조이다. 이 고주파 발전기가 설치된 송신소는 1929년에 건설된 당시 세계최대급의 무선송신시설이었으며, 장파에 의한 유럽으로의 송신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이로 인해 당시의 외교와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 **토카이도 신칸센 O계 전차객차 (東海道新幹線O系電動客車)**

O-Series Tokaido-Shinkansen Electric Multiple Units

1964년 10월 1일 토카이도 신칸센이 개통했다. 일본에서는 1872년 개업 이래, 궤간을 1,067mm로 하여 철도건설을 진행시켜 왔지만, 토카이도 신칸센은 수송력 증강을 위해 표준궤(1,435mm)를 사용함으로써 고속안정주행을 실현했다. 새로운 신호시스템 개발, 건널목을 없애는 등 종래의 철도기술을 일신하였다. 최고속도는 당시 철도의 한계로 여겨진 210km/h로, 「Shinkansen」이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주목 받은 철도고속화의 전조가 되었다.



● **230형 233호 탱크식 증기기관차 (230形233号タンク式蒸気機関車)**

Class 230 No.233 2-4-2 Steam Tank Locomotive

1902~1909년에 걸쳐 오사카기차제조합자회사에서 제조된 증기기관차로, 당시 단거리용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던 영국식 A8계를 모방해 설계되었다. 민간에서 처음으로 양산한 증기기관차로 안정된 성능과 보수의 용이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62년 교통 과학관(現 교통과학박물관)의 개관에 따라 복원되어 현존하는 최고의 일본산 탱크식 증기기관차로서 1986년에는 준철도 기념물에, 2004년에는 철도 기념물에 지정되었다.



👉 일본의 주요지표 👈

항목	명목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	경기동향지수		기업도산건수	국내기업돌가지수 (총평균)
단위	전기대비연율	전기대비연율	先行DI	一致DI		전년대비
	%	%	%	%	건	%
2004년	1.6	2.7	2004년	-	13,679	1.3
2005년	0.6	1.9	2005년	-	12,998	1.7
2006년	0.3	2.2	2006년	-	13,245	3.1
05년 1~3월	-0.1	2.8	2006년 10월	50.0	1,166	2.7
4~6월	2.5	3.8	11월	25.0	1,091	2.6
7~9월	0.8	3.0	12월	25.0	1,109	2.5
10~12월	1.0	1.5	2007년 1월	37.5	1,091	2.1
06년 1~3월	1.2	2.2	2월	25.0	1,102	1.7
4~6월	p 1.1	p 1.8	3월	33.3	1,247	2.0
7~9월	p -0.3	p 0.3	4월	p 18.2	p 70.0	2.3
10~12월	p 5.6	p 5.4	5월	p 40.9	p 60.0	2.2
07년 1~3월	p 2.1	p 3.3	6월	..	1,185	p 2.3
4~6월	7월

항목	소비자물가지수 (전국, 생선식품 제외)	광공업생산지수	기계수주 (선박, 전력 제외)	신설주택착공	소비지출 (전세대)	대형소매점 판매액	승용차판매대수 (보통· 소형 제외)
단위	전년대비	전년대비	季調, 전년대비	未季調	전년대비	점포조정필 전년대비	대
	%	%	%	戶	%	%	대
2004년	-0.1	5.5	4.4	1,189,049	0.4	-3.5	4,768,131
2005년	-0.1	1.1	7.1	1,236,175	-0.8	-2.3	4,748,409
2006년	0.1	4.8	4.0	1,290,391	-1.9	-1.2	4,641,732
2006년 10월	0.1	1.5	1.7	118,360	-1.8	-1.7	332,350
11월	0.2	0.4	0.0	115,392	-0.3	-0.8	362,253
12월	0.1	0.8	0.9	107,906	-1.5	-2.4	330,905
2007년 1월	0.0	-2.3	3.6	92,219	0.6	-0.5	308,255
2월	-0.1	0.7	-4.9	87,360	1.2	0.5	424,937
3월	-0.3	-0.3	-4.5	99,488	0.1	-1.1	639,497
4월	-0.1	-0.2	2.2	107,255	1.1	-1.8	290,062
5월	-0.1	-0.3	5.9	97,076	0.4	-0.8	307,077
6월	-0.1	p 1.2	..	121,149	-0.1	p 0.9	373,185
7월	p 357,979

항목	소정외노동시간 (전산업)	완전실업률	유효구인배율	경상수지	무역·서비스 수지	자본수지	무역액 (주간베이스)	
단위	시간	%	배	억엔	억엔	억엔	수출	수입
	시간	%	배	억엔	억엔	억엔	억엔	억엔
2004년	10.3	4.7	0.83	186,184	101,961	17,370	611,700	492,166
2005년	10.4	4.4	0.95	182,591	76,930	-140,068	656,565	569,494
2006년	10.7	4.1	1.06	198,390	73,336	-122,959	752,462	673,443
2006년 10월	10.8	4.1	1.07	15,303	4,320	-10,660	65,975	59,841
11월	11.1	4.0	1.07	17,457	9,532	-2,143	66,296	57,217
12월	11.2	4.0	1.07	17,816	10,250	-10,752	69,591	58,495
2007년 1월	10.6	4.0	1.06	11,429	-1,352	-16,497	59,532	59,567
2월	10.9	4.0	1.05	23,990	10,242	-17,621	64,177	54,431
3월	11.4	4.0	1.03	32,879	17,900	-38,968	75,127	58,845
4월	11.4	3.8	1.05	p 19,865	p 5,292	p -8,903	66,329	57,117
5월	10.6	3.8	1.06	p 21,336	p 4,298	p -26,361	65,650	r 61,817
6월	p 10.7	3.7	1.07	r 72,844	pr 60,610
7월

(출처) 내각부, 일본은행, 동경상공리서치, 총무성통계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후생노동성, 재무성 (주) p는 속보, r은 정정. GDP성장률은 실질치의 산정을 연쇄방식에 의해 변경. 소비지출은 전세대(농림어가세대를 포함)의 수치. 소정외노동시간은 사업소규모 5인 이상

일본 치바현 기업유치안내 “치바로 오십시오!”

일본 시장 진출의 첫발을 최적의 입지조건을 자랑하는 치바현에서 시작하십시오. 치바 투자서포트센터는 마쿠하리에 외국계기업 스타트업센터(FASuC)를 설치하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함께 다양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치바현 입지기업 조성제도, 치바현 기업·연구소 입지촉진자금 융자제도, 치바현 외자계기업 오피스 등 임대료보조금 제도 등 각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외자계기업 여러분을 위하여 임대료의 렌탈오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 분양우대제도, 분할납입제도, 지불유예제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에게는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심규진 과장 Tel : 02-3014-9877 / E-mail : kjshim@kjc.or.kr)

회원 동정 & 단신

■ **조석래(趙錫來) 회장**

(전경련·효성 회장)은 8월 24일 서울 광진구 웨라톤 위커힐 호텔에서 산업자원부와 전경련 공동 주최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개최사를 하였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컨퍼런스는 상생협력 Think-Tank인 상생협력연구회(회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를 주축으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한편, 조 회장은 7월 27일 일본을 방문 일한경제협회 이이지마 회장과 면담, 한일FTA 체결 등 한일간 경제협력방안과 내년에 개최되는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해 논의하고 귀국했다.

■ **박태준(朴泰俊) 명예 회장**

(포스코 명예회장)은 8월 21일부터 3일간 차세대 혁신 제철 설비인 파이넥스공장과 최근 준공한 포스텍의 포스코국



제관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명예회장은 파이넥스공법의 경제성과 향후 확대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파이넥스라는 최고의 혁신기술로 포스코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텍을 방문해 포스코국제관을 비롯해 나노집적기술센터, 생명공학연구센터 등을 둘러보고 박찬모 총장 등을 만나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시킬 것을 당부했다.

■ **김기문(金基文) 고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월 22일 여의도 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발전에 공헌한 역대 중앙회장 10명과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로 선정된 41명의 모범 중소기업인의 기념 동판이 공개됐다.



■ **이희범(李熙範) 고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우리나라 산업 및 무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8월 17일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서대측은 1972년에 공직을 시작해 산



자부 차관, 생산성본부 회장, 서울산업대 총장, 산자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탁월할 행정능력을 보여줬으며 우리나라가 산업강국, 무역대국으로 진입하는데 기여한 이 회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 **손경식(孫京植) 고문**

(대한상의 회장)은 8월 16일 상의회관을 방문한 다도 하룬 이스마일(Dato Harun Ismail) 주한브루나이대사를 만나 양국간 경제교류가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더욱 증진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7월 31일에는 마르셀라 로페즈 주한페루대사를 접견한 바 있다



■ **구본준(具本俊) 부회장**

(LG상사 부회장)은 사내 인트라넷(LGIN)에 여름휴가 중 읽을 만한 책으로 미국 장수 기업들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법과 그들의 경영철학이 담긴 '100년 기업을 디자인하라'(저자 짐 언더우드)를 추천했다. 구 부회장은 "이 책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는 임직원들의 미래 창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최고경영자(CEO), 무역협회 부회장, 서울상의 부회장, 한미재계회의 회원 등으로 최근 왕성한 국내외 활동을 하고 있다.



■ “가정이 행복해야 회사가 발전합니다. 가정이 편안할 때에 업무의 창조성이나 효율성이 더 높아집니다.” **김윤(金鈞) 부회장**(삼양사 회장)이 회사 발전에 앞서 임직원 가족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다. 김 부회장의 이 같은 평소 소신에 따라 지난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전러닝센터에서 임직원 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원자녀과정’과 ‘행복한 가정과정’으로 구성된 행사를 진행했다.



■ **류진(柳津) 부회장**(풍산 회장)은 최근 육사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2005년에도 5억원을 출연한 바 있는 류 부회장은 “사관생도들이 장차 군의 지휘관으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의 수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풍산은 홈페이지(www.poongsan.co.kr)를 새로 개편하여 오픈했다. 기존의 회사 사용색상인 옐로우를 탈피하여 과감하게 그린계열을 사용함으로써 환경과 윤리경영 강화에 힘쓰겠다는 그룹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새 홈페이지에서는 순수한 동의 가치와 소재산업이라는 하나의 기업 목표에만 매진해온 풍산의 기업 이미지를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 한중우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7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간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쉐허오차이 중한우호협회 회장으로부터 ‘중한우호 공헌상’을 수상했다. 박 부회장은 2005년 3월 제 4대 한중우호협회 회장에 취임한 후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의 한국 방문시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은 물론, 중국 전문가 월례초청 강연, 한중수교기념음약회, 주한중국외교관 산업시찰 등 양국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8월 23일 박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주최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상하이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에 참석했다.



■ **윤종용(尹鍾龍) 부회장**(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에서 삼성의 창조경영을 전파했다. 8월 23일 일본 현지에서 NHK 방송 프로그램인 ‘경제 나침반’ 제작팀과 특별 회견을 갖고 이견희 삼성 회장의 경영철학과 삼성전자의 글로벌 성장,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 노력 등을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NHK는 삼성의 창조경영을 특별기획 시리즈로 다루기 위해 취재해 왔는데 윤 부회장 인터뷰는 이 시리즈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 지난 6월 13일 열린 최고경영자(CEO)에게 주어지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제16회 다산경영상’ 시상식에서 **이구택(李龜澤) 부회장**(포스코 회장)이 전문경영인 부문에서 **김신배 SK텔레콤 사장**과 함께 다산경영상을 수상했다. 또한 창업경영인 부문에서는 **이완근 신성이엔지 회장**이 수상했다. 이 부회장은 “철강업 38년의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며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변화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 **윤종용(尹鍾龍) 부회장**(삼성전자 부회장),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6월 24일 월간조선이 선정하는 ‘2007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를 겸하고 있는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경태 원장)과 6월 28일 신라호텔에서 한·일 기업간 교류, 상호 정보제공 및 연구개발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허 전무는 6월 5일 ‘건강 100세의 길’이라는 주제로 국선도 수련성과 발표회를 가졌으며, 발표회 때 모금된 기금은 지난 2005년 도쿄 지하철에서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고 이수현 씨 장학재단과 국선도회관 건립 기금으로 전달됐다.



2007년도 한일경제협력 주요사업 Calendar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29(월)~2/9(금)	경영관리연수(1차) 실시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
2	8(목)	지식산업기술연수 평가회 개최	한국 서울
	9(금)~13(화)	제8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일본 치바
	15(목)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한국 서울
	26(월)~3/9(금)	경영관리연수(2차) 실시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
3	5(월)	한일재단 정기이사회 개최	한국 서울
	7(수)	제26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 서울
4	12(목)~13(금)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한국 부산
	13(금)	한일재단 연락협의회 개최	한국 부산
	9(월)~20(금)	생산관리연수(20명) 실시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
5	27(일)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활동 개최	한국 서울
	22(화)~25(금)	한일부품소재 상호보완상담회(15개사) 파견	일본 오사카
	5월~8월	생산성향상컨설팅(7개사) 지도실시	한국
6	18(월)	한일부품소재 상호보완상담회(20개사) 파견	일본 도쿄
	20(수)~24(일)	아시아산업기술페어 2007(15개사) 개최	일본 기타큐슈
7	1(일)~13(금)	품질관리연수(30명) 실시	일본 도쿄
	10(화)~13(금)	제1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한국 부산
	18(수)	주한일본대사 주최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23(월)~11/10(토)	지식산업기술연수(23명/111일간) 파견	일본 도쿄
8	5(일)~9(목)	제9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일본 도쿄
	20(월)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9		경영혁신벤치마킹연수(20명) 실시	일본 도쿄
	~1년간	생산성향상컨설팅 기술고문매칭지원(5개사)	한국
10	24(수)~26(금)	제77차 한일비즈니스상담회 개최	일본 도쿄
	24(수)	한일산업협력세미나 개최	한국 서울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활동 개최	한국 서울
11	7(수)~10(토)	제8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한국 울산
	9(금)	한일부품소재 상호보완상담회(20개사) 유치	한국 서울
	9(금)	2007 한일아웃소싱상담회(15개사) 유치	한국 서울
	12(월)~14(수)	제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일본 요코하마
	12(월)~17(토)	제20회 한일산업기술교류미션(30개사) 파견	일본 히로시마, 오카야마
	26(월)~29(목)	제7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일본 쿠마모토
		지식산업기술연수 수료식 & 보고회 개최	일본
	생산성향상단기컨설팅 성과발표회 개최	한국 서울	
12		주한일본특파원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일한경제협회와의 정례업무협의 개최	일본

>>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이사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부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부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shim@kjc.or.kr 홍소영 사원 02-3014-9888 syhong@kjc.or.kr